


		<h1>보 도 자 료</h1>		
		배포일시 2021. 12. 9.(목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		
		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	담당자	• 과장 김승범, 사무관 김준수, 주무관 권택규 • ☎ (044) 201-3988, 3968, 3965	
	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을수, 팀장 변미정, 주무관 윤일 • ☎ (032) 440-5030, 3881, 3887	
	공항철도(주) 영업계획처	담당자	• 처장 정용희, 팀장 조재민, 과장 박세철 • ☎ (032) 745-7080, 7320, 7321	
보 도 일 시		2021년 12월 1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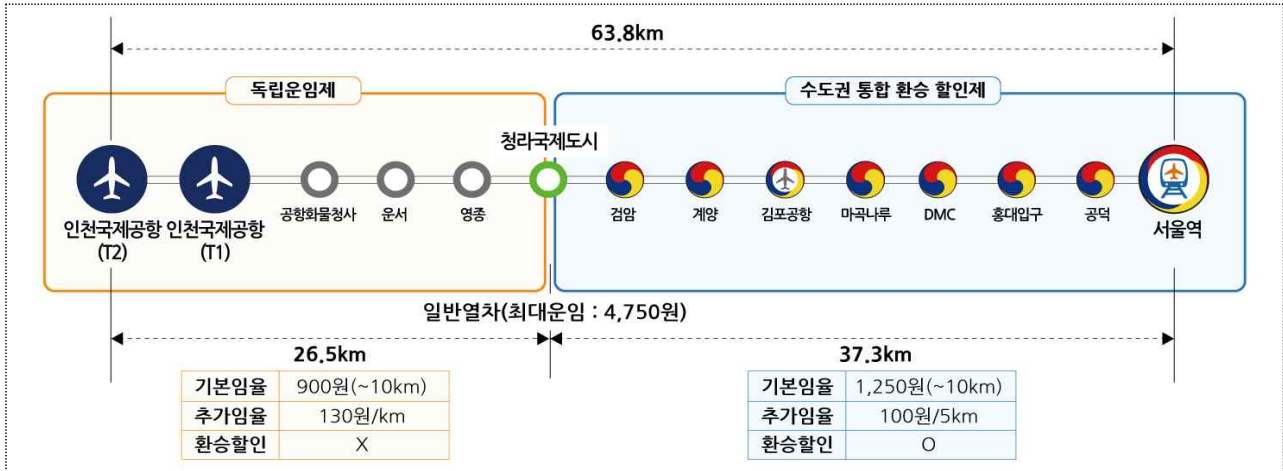
영종지역 주민들 공항철도 요금 최대 40% 인하된다

- 이르면 ' 22년 상반기부터... 공항철도↔버스환승할인도 가능해져 -

-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종지역 주민들의 공항철도 요금이 최대 40% 인하되고, 공항철도와 버스환승 할인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2월 10일 인천시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「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」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- 2010년 인천국제공항철도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육지구간(서울역~검암역)에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되고 섬지역인 영종역부터는 독립요금제*가 적용되어, 영종지역 주민들은 육지구간 보다 700원~1,100원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도 받지 못했다.

* (독립요금제)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의 구간에서 독립적으로 징수하는 운임으로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음

< 공항철도 요금제 개요 >



○ 이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(약 10만명, '21.11월 기준)들의 지속적인 요금 인하 요구가 있었으며, 국회에서도 공항철도 이용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'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'을 진행('20.3월~12월)하였고,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i) 영종·운서역에 대해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수준의 특별할인과 ii) 인천시 내 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 방안을 마련했다.

○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종지역 주민들은 서울역까지 왕복 기준으로 최대 4,5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< 영종지역 ~ 서울역 대중교통 이용요금 전후 비교 >

구분	기존(A) (환승할인 ×)	개선(B) (환승할인 O)	할인금액 (A-B)
인천버스 ↔ 운서역 ↔ 서울역	왕복 9,000원	왕복 4,500원	4,500원
운서역 ↔ 서울역	왕복 6,500원	왕복 4,300원	2,200원
인천버스 ↔ 영종역 ↔ 서울역	왕복 8,000원	왕복 4,300원	3,700원
영종역 ↔ 서울역	왕복 5,500원	왕복 4,100원	1,400원

* 대표적인 사례를 비교한 것이며, 인천버스 이용거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- 인천광역시, 공항철도(주)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로 요금인하 및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, 할인금액은 주민들에게페이백 형식으로 지급한다.
-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, 공항철도(주)와 합의했다. 공항철도 운임할인금액은 인천광역시가, 공항철도와 버스 간 환승할인금액은 인천광역시와 공항철도(주)가 반씩 부담하고, 특별할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공항철도(주)가 부담한다.
- 오늘 협약식에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,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, 이후삼 공항철도(주) 사장, 배준영 의원 등이 참석하고, 협약식 이후 공항철도(주)는 인천광역시와 협의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, 2022년 상반기 중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.
-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“영종지역 주민들의 10년 넘은 숙원을 정부, 인천광역시, 공항철도(주) 등 관계기관이 노력해서 해결했는데 큰 의미가 있다”면서, “공항철도 고속화 등 공항철도 서비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남은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
-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“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수도권통합요금제 및 환승할인 혜택에서 소외됐던 영종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인천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권택규 주무관(☎ 044-201-3965) 또는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변미정 팀장(☎ 032-440-388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시스템

□ “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시스템” 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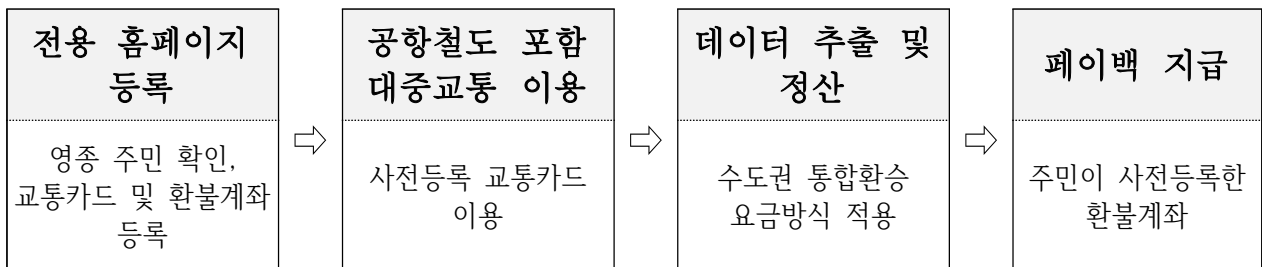
- 영종지역 주민이 운서역, 영종역을 이용하여 공항철도 독립요금제 구간 이용을 통해 지불한 운임(A, 주민 실제 지급액)에서,
-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운임(B, 별도로 개발하는 시스템을 통해 계산)과의 차액(A-B)을 주민 본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해 주는 시스템

※ (예) 주민이 영종역~서울역 이용(47.5km)시 2,750원 요금 지불시 추후 700원 환급
(아래 표 참고)

현 요금방식(A)	수도권통합환승제 혜택 적용(B)	차액(A-B)
2,750원	2,050원	700원
<독립요금> 청라-영종 900원, 기본요금 10km 900원(1km마다 130원) <통합요금> 서울-청라(37.3km) 기본요금 10km 1,250원 +추가요금 27.3km 600원(5km마다 100원)	통합요금 기본요금 10km 1,250원 +추가요금 37.5km 800원(5km마다100원)	페이백

<영종-서울역 구간(47.5km) 환급금액 산출방법 및 요금비교 표>

□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시스템 지급 절차



* 선불카드, 후불신용카드 등 교통카드 형태에 모든 카드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